

# “보신과 화신은 참된 부처 아니다”

인연이 다하면, 모든 것은 무상(無常)으로 돌아가고 만다.

일반적으로 몸을 지니며 쓰고 사는 한, 선업을 짓고 좋은 결과로 나누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처의 입장은 다르다. 부처는 지옥에 있든 천상에 있든 상관없이 늘 여여해서, 한 번도 만들어지고 변해 없어지는 모습을 지닌 적이 없다. 알고 보면 모든 변화하는 모습은 다 허망한 일이다. 그래서 한 생각 돌이켜서, 본래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열반 실상에 눈을 뜨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도요, 진정한 선(禪)이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된 부처가 아니요,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고 하였다.

법신·보신·화신의 삼신을 비유하자면, 법신은 달이고 보신은 달빛이며 화신은 달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달이 있으면 달빛이 있고, 달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보신과 화신은 모두 인연 따라 만들어진 모습일 뿐,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아 아상(我相)과 인상(人相)이 없으면, 본래 그대로 부처다.”

아상과 인상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 인·아상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 없는 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나? 인·아상이 본래 없는 줄을 확실하게 자각할 뿐이다. 사람들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모두 그림자일 뿐이다. 때에 당해서 인연 따라 모습을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끊어야 될 뭉개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본래 상이 없음을 철두철미하게 자각을 해서, 없는 상을 없애려고 애쓰는 또 다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3. 기틀을 쉬고 견해를 잊음

배후가 물었다.  
“성인의 무상은 곧 부처이지만, 범부의 무상은 공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본래 무심이어서, 성인의 무심 따로 범부의 무심 따로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는 중생은 자꾸 범·성을 구별 지으려고 한다. 따라서 명안중사는 중생의 미혹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시설해준다. 믿음을 낸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황벽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법에는 범·성의 구별이 없으며, 또한 공적에 빠지는 일도 없다.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

##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2)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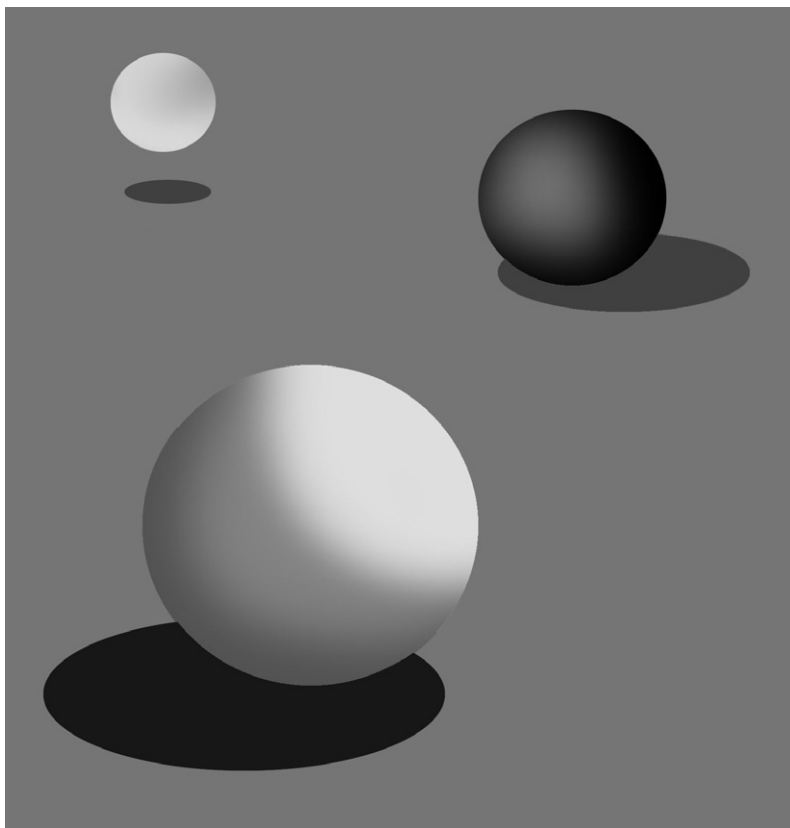
법신은 달이고 보신은 달빛이며 화신은 달 그림자

“보신·화신은 인연따라 만들어진 모습일뿐 법을 설하는 자 아니다”

아상과 인상 없으면 본래 그대로 부처다

아상·인상은 본래 없는 것 인연따라 나타나는 ‘상’을 끊으려 함은 어리석은 일

‘본래 없음’ 철저히 자각해야



그림·박구원

니지만, 없다는 견해도 버지 말라. 또한 법은 본래 없지 않으나, 있다는 견해도 버지 말라.

공부한 사람은 견해를 세우는 법이 없다. 세워서 할 법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법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바 없이 쓰는 그런 인연들을 살피며 살아간다. 본래 마음자리에 성인과 범부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밝게 아는 것이다. 부처님도 성품이 돌이 아니라 했다. 성인의 마음과 범부의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만 업의 인연이 성인과 범부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본래 마음자리에 무슨 법·성이 있겠나? 본래 마음자리와 이미 별어진 현상세계의 양쪽을 모두 소화하여, 이쪽과 저쪽의 가르마를 잘 탈 수 있는 법의 인연을 능숙하게 알고 사용하는 힘을 가진 공부인이 되어야 한다.

법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모두 정식(情識)으로 헤아리는 견해로서, 마치 허깨비와 같은 것이다.

현상계의 차별은 다만 정식으로 헤아린 견해일 뿐이다. 그런 허깨비 장난에 놀아나는 안 된다. 도인의 눈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일반 사람들은 범부와 성인을 구분 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규범을 만들며, 그렇게 살도록 스스로와 주위를 둘러싼다. 그렇지만 진정한 도의 안목을 지니게 되면, 그런 상대적인 차별을 뛰어넘는다. 세속의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 불이(不二)의 중도로서 상대적인 가치들을 포섭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인은 상대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평상심으로 무애자재 하게 살아간다.

한쪽으로 치우친 변견을 뛰어넘어 중도실상에 눈뜨려면, 훌륭한 선지식 아래에서 부단히 정진하며 또 안목 있는 도반을 가까이 하면서 늘 자기점검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공부인의 청복(淸福)인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허깨비 같고, 헤아려 아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고 하였다.

중생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낸다. 본래 중생과 부처는 하나로써 차별이 없는데, 중생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그림자에 현혹되어 꼬달리는 것이다. 깨달음을 눈 뜨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분별이 사라진다.

조사 문중에 있어서는 오로지 마음을 쉬고 앞을알아를 잊는 것을 논할 뿐이다.

하루 종일 마음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는 본래 실상을 완벽하게 깨달으면, 더 이상 시비는 시비가 아니게 되어 저절로 그림자에 속지 않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쉬어지고, 앞을알아를 잊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쉬어 버리면 부처님의 도가 응성해지고, 분별하면 마구니가 치성해진다.

사실 쉬어 버릴 마음이란 본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쉬라 마라 할 것이 없다. 이 하나를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황벽스님이 고구정령하게도 완릉의 관찰사인 배후의 눈높이에 비춰서 방편으로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다.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 나보다 아랫사람이나 빈천(貧賤)한 사람에게도 공양한다

(법화경)

#### 공양(供養) 개념의 확충

절에 가면 부처님 앞에 불전함이 있다. 불전(佛錢)을 넣는 함이다. 흔히 다른 이름으로는, 복전함, 혹은 희사함으로도 부른다. 불전을 올리는 것이 복전(福田)에 복을 심는 행위라는 뜻이 담겨있다. 또한 나의 것을 기쁘게 내버릴(喜捨) 수 없다면, 불전을 부처님께 올리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물질적인 기부를 바치는 것은 아무리 종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물질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존, 우리의 몸 자체가 물질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물질은 노동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런데 종교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속사람들처럼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신자들이 보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물질적 기부의 대상, 즉 그러한 물질적 기부를 받아들여주는 존재는 신앙의 대상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불교의 경우에는 부처님이나 스님이 된다. 스님 역시 삼보(三寶)의 하나이므로, 신앙대상이다.

부처님이나 스님들께 바쳐지는 물질적 기부는 다른 말로는 ‘공양’이라 한다. 공양은, 그러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세속의 계급은 아니지만, 부처님이나 스님은 우리 신자들보다는 높은 존재들이다. 저를 알아주시는 분이요.

공양은 그렇게 높은 분들에게 바치는 행위이다.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높은 분들에게 올리는 것만을 공양이라 말하는 않는다.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나, 흔히 비천한 사람이라고 외면당하는 사람들까지 다 공양의 대상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엄경》에서는 공양 개념이 확장되어 있다. 높은 곳에 올리는 공양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올리는 공양이다! 보살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여기다. 높은 분들은 물론, 낮은 사람에게도 공양을 올리는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 부른다.

#### 공양은 회향이다.

부처님 앞에 놓여있는 불전함은, 우리의 복을 저축할 수 있는 통장일지도 모른다. 10원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100원, 1,000원, 혹은 10,000원 ---? 그 액수의

규모는 일정하게 정할 일이 아니다. 다 행편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0원이란도 넣고 나서 절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행위가, 나의 것을 나누어 갖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회향(廻向)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회향이라는 행위에서, 어떤 성스러움을 발견한다. 그렇기에 회향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라 하기 어렵고, 불자라고 하기 어렵다.

회향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한다. 회향이 반드시 다른 존재,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원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이유이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



그림·박구원

라고 천시되는 사람들에게까지 꽃을 올린다.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한 공양, 즉 회향에는 반드시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함께 염원하는 마음이 담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원하옵건대, 이러한 모든 선근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들이 다 모든 부처님의 삼매의 꽃을 얻어서 청정하게 꽃을 피우고, 그 마음으로부터 진리의 모든 꽃을 피우게 하소서.”

이렇게 원하는 것이다. 공양, 즉 회향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공양이 다시 어떻게 회향되어야 할 것인지, 그 점은 관리자인 승보(僧寶)의 책임이다. 다시 우리 사회의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라 천시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어느 만큼 회향되어야 하는가? 절이나 스님이 회향중개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전자식 2종문 3종경보 **특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던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간의사: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손기원 박사와 신명나는  
여름 청소년 지혜인 캠프

**집중력**

집중력 High5 프로그램

집중력 향상 (목표의식+명상+만점 자세)  
+인성+자기주도학습+자신감+힐링캠프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 21기 : 7.20~7.24 / 22기 : 7.29~8.2 (5일 과정)  
단체복, 수료증 (특목고 / 입학사정관제 활용)

☎ 문의: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340호

함께 하나되어 변화하는 새로운 종단!

**禪大韓佛敎 曹溪宗**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중도를 모십니다.

**입 종 안 내 제 출 서 류**

- 승적원부 (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 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 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 임명장, 사찰등록증, 지급

승려증만 남발하는 종단이 아닙니다.  
이제 이종단 저종단 가입하지 마십시오.  
몇몇 종단을 제외하고 등록하신 종단에서  
무엇을 지원했는지 생각 해 보십시오.  
가입비 및 분담금이 최저이지만 종단  
에서 무료 지원 할 수 있는 종목을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  
禪大韓佛敎 조계종  
종단 가입문의: (02) 959-1825  
종단사업부: 070-7391-7767

본 종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그 수익금은 종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중도가 잘 되어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